시도지사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이념 성향따라 혼란” “교육자치 근간 훼손” 논란 예고

전국 시·도지사들이 논란 끝에 올해 처음 시행된 교육감직선제의 폐지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계 전면에 나선 ‘진보성향’ 교육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으론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후보간 교육철학과 정책 대결에서 벗어나 돈·조직싸움으로 치달았다는 폐해가 제기되고, 낮은 투표율에 따른 대표성의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공론화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 시 · 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채택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교육 자치는 교육자 자치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감은 시 ·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 · 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시 · 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지역 교육의 수장이 정치에 관여하게 돼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허남식 회장은 “교육감을 별도로 직선제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전국 곳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와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했다.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은 “4년전 거론된 후 설득력을 얻지 못해 폐기된 직선제폐지 논의를 시·도지사들이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정치적인 의도로 훼손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이재남 정책실장은 “시·도지사들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시·도지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직선제 폐지 운운에 앞서 과연 시도 지사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시 · 도지사 협의회가 그런 문제를 논의할 자리인지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 지부장은 “직선제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며 공론화되더라도 여러 교육 단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 같다”면서 “대부분 정당에 소속된 시도 지사들이 직선제 폐지를 들먹이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가 정당 선호도와 맞물리는 바람에 정치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데다 교육도 지방자치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직선제에 대한 신중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전개될 공론화 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새내기 공무원 병영체험 6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31사단 유격훈련장에서 열린 ‘북구청 신규 임용직원 병영 체험’에서 참가자들이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북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병영 체험에는 남자 17명·여자 15명 등 32명이 참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현 여수시의원 6명 ‘오현섭 뇌물’ 추가 확인

무더기 당선무효 등 파장

경찰이 전·현직 여수시의원 6명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현섭 뇌물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여수시의원은 12명으로 늘어나 무더기 당선무효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여수경찰은 6일 A(63)씨 등 전·현직 시의원 6명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말께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오모(여·47)씨 등으로부터 각각 5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순신광장 사업’과정에서 받은 뇌물 2억원 가운데 일부를 오씨 등을 시켜 전·현직 시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로 범행이 드러난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오씨 등 5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B(59)씨 등 전·현직 시의원 6명이 오 전 시장 측근인 주모(67)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8일과 9일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여수시의원은 1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들 12명 가운데는 현직 전남도의원 4명과 여수시의원 6명 등 총 10명의 현직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될 경우 재판결과에 따라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주차 차량 3대 방화

서부경찰, 3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6일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최모(33)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밤 11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한 음식점 앞에 주차돼 있던 김모(32)씨의 그랜저 승용차 뒷바퀴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는 등 이날 새벽까지 모두 3대의 차량에 불을 질러 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최근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진 충격으로 지난주 직장을 그만둔 뒤 홧김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리베이트 혐의 종근당 압수수색

수사당국이 내달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있는 제약업체 종근당을 압수수색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10여명은 지난 4일 오전 서울 충정로 소재 종근당 본사와 지방영업소 4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7월 개설한 리베이트 신고메뉴를 통해 종근당이 쌍벌제 법안 통과 이후 병의원을 상대로 리베이트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수집을 한 뒤 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근당이 쌍벌제 법안이 통과된 4월말 이후 리베이트를 활발히 펼쳐 시행 전에 병의원의 처방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기간 병원별 처방자료와 병의원을 상대로 한 법인카드사용내역 등을 수집해 수사단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운참 〈8136〉 김종두

EEZ 침범 중국선박 나포

목포해경

목포해경은 6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하던 중국선적 70t급 단타망 어선 노첨어호를 나포했다. 이 어선은 전날 밤 10시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96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 해경 경비정에 붙잡혀 목포항으로 이송됐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아내가 주운 통장서 돈 인출 ‘덜미’

쌍나팔

○…자신의 아내가 주워온 남의 통장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40대가 경찰 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9)씨는 지난 7월 17일 백운동 모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김모(여·64)씨의 통장에 들어있던 현금 75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은행에서 김씨의 통장을 주운 아내가 “파출소에 갖다 주라”며 건넨 통장을 살펴보던 중 뒷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보고 ‘딴마음’을 가졌는데, 경찰에서 “통장을 들고 파출소로 가는 길에 갑자기 욕심이 생겼던 것 같다”고 뒤늦게 후회. /김호기자 kimho@

(경찰엔) 참~ 친절한 남구청

“불법 주·정차 직원들 차 옮기세요” 차량 단속 앞서 미리 전화로 통보

광주시 남구가 유관기관에 주·정차 단속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를 제공한 남구는 단속 전에 이뤄지는 통상적인 통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통보 방식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광주남부경찰은 지난 5일 오후 4시55분께 청사 내 근무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곧 남구청이 청사 인근 아파트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차량을 주차한 직원들은 이동시켜 달라”고 단속 예고 안내방송을 실시했다.

이 아파트 주변은 평소 남부경찰서 직원들이 청사 내에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 자주 불법 주·정차를 하던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불법 주·정차 민원을 접수한 남구가 차량을 이동시켜달라고 통보해 방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이뤄지는 반면 남구가 남부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단속 사실을 통보해준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구는 “업무와 관련해 남부경찰서 직원과 통화중 때마침 남부서 인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알려준 것 뿐”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대학편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김영만의 탄탄한 합격시나리오 11월 1일 대개강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정겨운 연인과 함께!!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향토사랑 영화사랑 콜롬버스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하남점	
1관	방가?방가!(12세)	1관	슈퍼배드(전체)/레지던트이블4(18세)
2관	마루밑아리에티/퀴즈왕	2관	해결사(15세)
3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3관	무적자(15세)/아저씨(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4관	캣츠앤독스2(전체)/레지던트이블4(18세)
5관	해결사(15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5세)
6관	슈퍼배드(전체)/아저씨(18세)/레지던트이블4(18세)	6관	방가?방가!(12세)
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5세)	7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8관	슈퍼배드(전체)/적인걸-측천무후의 비밀(12세)	8관	시라노-연예조작단/퀴즈왕
9관	무적자(15세)	9관	슈퍼배드(전체)/해결사(15세)
10관	적인걸-측천무후의 비밀(12세)	10관	무적자(15세)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차장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구. 런던약국사거리

☎ 1544 -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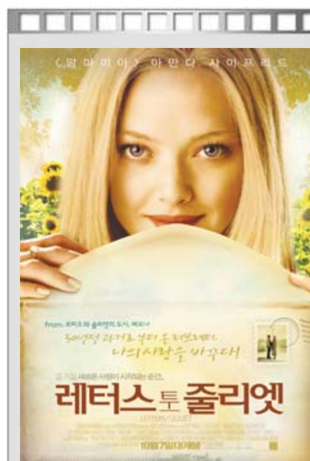
MEGABOX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최고급관
2관	적인걸-측천무후의 비밀(12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4관	해결사(15세)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5관	레지던트이블4(18세)
6관	방가?방가!(12세)
7관	마루 밑 아리에티(전체)/무적자(15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9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적인걸-측천무후의 비밀(12세)
3관	방가?방가!(12세)/레지던트이블4(18세)
4관	해결사(15세)/아저씨(19세)
5관	슈퍼배드(전체)/무적자(15세)
6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7관	레터스 투 줄리엣(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